

미국 남침례회, 지난해 교인 43만명 줄어...14년 연속 감소세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SBC)가 2020년에 40만 명 이상의 교인이 감소했으며, 이는 단일년도 기준으로 100여 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수치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연례 교회 프로필 보고서에 따르면, 남침례회 교인 수는 2020년에 총 43만5632명이 줄었고, 이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한 28만7655명보다 50%이상 높은 수치이다.

교인 감소는 남침례회가 2006년 1,63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4년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있으며, 지금까지 약 2백만 여명이 교단을 떠났다.

남침례회에 가입한 교회 수는 전년도(2019년)에 비해 62개가 증가한 4만7592개이다.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스코트 맥코넬 전무이사는 성명을 통해 남침례회 교인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로 침례 및 기타 활동 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을 꼽았다.

2020년에 보고된 침례 수는 12만3160건으로, 전년도의 23만5748건, 2018년 24만6442건에 비해 약 50%가 감소했다. 작년은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을 크게 받은 탓이지만, 침례 수 감소는 9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다.

맥코넬은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행동은 전염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을 돕는 데에는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방식을 통한 활동으로도 방학성경학교, 라이브 행사, 새신자 초청예배 등을 통해 직접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데는 변함이 없었다"며 "남침례교인들이 이토록 적은 수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본 것은 유행성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던 1918년과 1919년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맥코넬은 교인 수의 감소에는 미



미국 남침례회 본부. ©남침례회 홈페이지

국내 세속화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숫자로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개인과 교회가 기울인 모든 복음주의적 노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평균적으로 갈

은 수의 노력하는 교인들은 더 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남침례회는 예수께로 나오는 일에 관심없는 미국인들, 더 많은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 사이에 급증하

는 세속화에 면적이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대유행 외에도, 지난해 남침례회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둘러싼 격론에 휩싸였다.

남침례회는 2019년 비판적 인종이론이 다양한 인간의 경험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결의안 9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1년 후, 교단 산하 신학교 총장들은 이 이론을 폐기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 흑인 침례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은 교단 탈퇴를 선언했다.

올 여름 열린 연차총회에서 결의안 9호가 폐지될 경우, 더 많은 흑인 목회자와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3월에는 미국의 유명 성경 교사이자 작가인 베스 무어가 남침례회 및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와의 관계를 모두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김유진 기자

코로나 후, 교회가 절대 타협 말아야 할 2가지

미국 빌리지교회(Village Church) 맷 찬들러(Matt Chandler) 목사가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적대적인 문화 속에 교회 지도자들이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2가지를 소개하고, "교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익스포넨셜스 리셋 서밋'(Exponential's Reset Summit)에 강사로 나선 찬들러 목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과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신부된 교회와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라며 "예수님은



맷 찬들러 목사. @thegospelcoalition.org

당신의 신부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생각과 마음, 상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떠올린다면,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찬들러 목사는 코로나 이후 교회를 자신감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리더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2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며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또 장소를 확보하여 성경공부를 하거나,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깊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다. 그는 "그분은 날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앉아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둘째, 항상 내면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찬들러 목사는 "나는 항상 2명의 친구들을 곁에 둔다. 그들은 나의 예산을 살피고, 세금 환급도 보고, 로렌 사모와 내가 아이 때문에 좌절하거나 걱정할 때도 알고 있다. 재정이 부족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알고 있다. 일부 교인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정을 공유하면, 그들이 나의 강박관념이나 목사로서 행동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서두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이 제 머리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했다.

찬들러 목사는 "대유행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다시 심어주고 싶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이 순간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끝을 이해하는 이들의 모든 열정으로 이 순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자"고 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RN to BSN) 신입생 모집

- 2021년 8월 23일 개강
- 간호학 준학사 학위와 RN License 소지자 지원 가능
- 18개월 과정
- 18개월 총 학비 \$16,100 (분납 가능)
- 유학생 1-20 발행 (졸업 후 OPT 가능)
- ABHE 인가
- 100% 온라인 강의
- 1:1 멘토 시스템의 학생 중심 학습
- 우수한 교수진과 Evidence-based Practice
- 미 정부 Financial Aid 및 학비 용자 (유자격자)

6월 30일 이전 등록시 입학금 (\$300) 면제

문의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ww.wmu.edu
 Tel : (213) 388-1000 • E-mail : wmuinfo@wmu.edu

* 본 대학 입학시 교양학, 신학 학점이 미비한 경우 추가로 이수해야함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돌아오지 못한 영웅” 영화제작 기자 간담회 열린다

6월 4일(금) 오전 11시, JJ 그랜드 호텔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제작중인 영화 “돌아오지 못한 영웅” 제작 발표회와 기자간담회가 6월 4일(금) 오전 11시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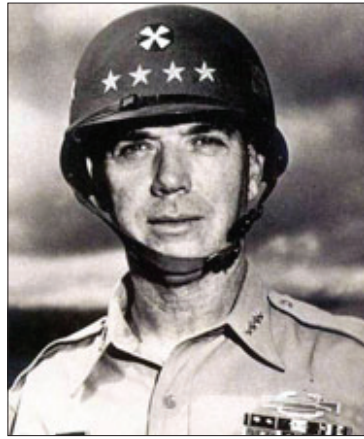
6.25 기념사업회장(회장 박홍기),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육군 동지회장(회장 최만규), 세계기독교모임 미서부지부(지부장 김영구 목사)가 공동 준비한다.

한편 “돌아오지 못한 영웅”은 밴플리트 장군의 헌신을 그린 영화로 밴플리트 장군은 1차, 2차 세계대전, 6.25 전쟁까지 참전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제8군 사령관 직을 맡아 대한민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한국군의 현대화와 미국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 퇴역후에도 종종 방한했으며, 미국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고 평생 한미관계 발전에 크게 헌신했다.

특히 그는 6.25 전쟁에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었다. 당시 밴플리트 주니어는 공군 중위로 참전, B-26 폭격기 조종 임무를 맡았다. 27세였던 그는 1952년 4월 4일 북한 순천 지역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포격을 맞고 실종됐다.

밴플리트 주니어의 실종 소식을 들은 참모들은 “수색을 확대해 밴플리트 주니어를 찾자”고 건의했지만, 밴플리트 장군은 “내 아들을 찾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는 것보다 다른 작전이 더 중요하다”며 수색 작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KAPC 제45회 총회, 신임총회장 오세훈 목사 선출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는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제45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으로 오세훈 목사(세계소망교회, 로스앤젤레스 노회)를 선출했다.

또 부총회장 홍기표 목사(다민족교회, 중부노회), 서기 장성철 목사(보스턴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 부서기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뉴욕남노회), 회록서기

이영진 목사(멤피스제일장로교회, 동남부노회), 부회록서기 분석호 목사(벤쿠버시온성교회, 가미노회), 회계 김영석 장로(상항중앙장로교회, 북가주노회), 부회계 김원도 장로(퀸즈장로교회, 뉴욕노회)를 선출했다.

신임 교단 총무로는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로스앤젤레스노회)가 선출됐다.

SEED 국제선교회 선교영상 컨테스트 시상식 개최



SEED국제선교회 대표 박신욱 목사 ©기독교일보

SEED 국제선교회(대표 박신욱 목사) 미국 본부는 지난 21일, 선교영상 컨테스트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선교 영상 컨테스트는 차세대 선교사와 영상선교사 발굴, 영상 선교 연구와 개발, 선교정보 공유 및 개발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2월부터 2달 동안 세계 각지역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와 선교지에 관련된 내용의 영상으로 참여했으며 심사를 통해 9명의 참가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에서 박신욱 목사는 “수상자들에게 선교영상 컨테스트의 심사를 통과하여 상과 부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영상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성도들이 선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SEED국제선교회는 앞으로 지역 교회도 선교 영상 제작을 통해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IRUS 제42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식 개최



IRUS 제42회 학위수여식

국제개혁 대학교 · 신학대학원(총장 박현성 박사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nd Seminary, 이하 IRUS)은 지난달 29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제42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식을 개최하고 박사 6명, 석사 29명, 학사 10명에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은 김춘경 박사의 사회로 총장 박현성 박사의 환영사에 이어 이사장 김요한 박사가 기도했다. 이날 “능력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나정기 목사(세계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는 “졸업생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박기태 박사의 학사보고, 총장 박현성 박사의 학사 석사 박사 취득자에 대

한 학위 수여에, 성적 우수자에 대한 우수상 수여, 졸업생들을 향한 박현성 총장의 훈시로 이어졌다.

박총장은 “예수 믿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희생과 헌신”이라며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타협과 부패를 거부하며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하나님의 종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내려놓는 훈련, 손해 보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념품 증정 시간에는 조배균 학생회장이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했고, 박성진 졸업생 대표가 학교에 전하는 선물은 전달했다. 졸업생들은 학문과 신앙을 훈련 받

은 학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면과 축사는 백남선 목사, 허활민 박사, 김정도 박사, 김기섭 박사, 정갑식 박사가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박무용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IRUS는 목회학 박사과정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 중인데 목회학 박사 과정 가을학기는 8월 16일부터 노봉린 박사의 강의로 시작된다. IRUS의 학사 석사 과정의 2021년 가을학기는 8월 23일에 시작되며, 개강 영성 수련회(8월 23일, 24일 저녁 7시)가 예정되어 있다.

박현성 총장은 “IRUS는 보수 개혁신학으로 무장한 목회자와 신학자 양성을 통해 이민 사회와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Grace Mission University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신학사 (BA)
-------------	---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 운영 •한국어 및 영어강의 •스페인어, 중국어 동시통역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Hybrid 강의 (대면 미팅 및 Zoom Lecture, 통신)
-----------	---

이벤트 1 Early Bird 장학금

•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접수 후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월 500불, 6월 300불, 7월 15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 2 화상 및 Offline 입학설명회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6월 17일(목) 오후 3시 (Offline) 입학설명회
6월 22일(화) 오후 2시 (영 어) 입학설명회
7월 8일(목) 오후 4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gm.edu/online)
Admission Zoom Interview : 213-993-4154(pw:2020)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714-525-0088(Ext 101)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임현수 목사 “북한 복음화 되고, 수만 개 교회 세워질 것”

기드온동족선교회 제142차 5월 복음통일 기도회 개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사악한 반기독교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인간의 생존권과 인권을 박탈당한채로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은 복음화 될 것이고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민족은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로 주실 것입니다.”

임현수 목사는 기드온동족선교회(대표 박상원 목사)가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42차 5월 복음통일 기도회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해 전세계 한민족 동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로 2015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8월 949일만에 풀려난바 있다.

이날 “눈물로 씨를 뿌리자”(시 126: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임목사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북한 땅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호와와의 군대로 일어날 것”이라며 “북한 땅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천 5백만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아직도 북한의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과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을 위해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목사는 “949일 동안 좁고 별레가 가득한 초라한 감옥에서 지내다가 자유를 얻어 풀려난 그날의 기쁨과 감사를 잊을 수 없다”며 “지금도 김일성 부자 우상화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기억하



제 16 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구국(연합) 기도회에서 설교하는 임현수 목사

변화시키는데, 북한에 있을 때 저를 조사하기 위해 제 설교를 모두 점검하던 조사원들과 감옥의 간수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북한 복음화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 복음 통일과 교회 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회개 기도와 함께 아직도 북한에 억류중인 선교사 7명의 송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과 오는 8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 하와이 코나에서 개최되는 제2차 글로벌복음 통일전문세미나를 위해 기도했으며 각 기도 제목을 놓고 남덕중 목사, 김학송 선교사, 장익보 목사, 배안호 선교사, 윤명호 장로가 대표로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이병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며, 복음 통일을 위한 씨앗을 뿌리자”고 독려했다.

그는 또 “생명의 말씀만이 사람을

“연합감리교, 보수 한국계 목회자 표적 삼았다” 교민들 항의 시위



하와이 UMC한인교회 성도들이 가주태평양연회 하기야 감독에게 한인 교회를 향한 핍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지부들도 그가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고발성 메일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하위스는 “하기야 주교는 일본계 미국인이며,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종차별적 행동의 역사가 길다”며 “우리는 더 많은 시위와 교단이 감독에게 지불하는 기금에 대한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CP는 인종 차별 논란과 관련해 가주태평양연회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UMC 한인 평신도연합회는 하기야 감독이 한인교회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온라인과 문서 서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3천 여명이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가한 헬레나 김 가주태평양연회의 공동대표는 CP에 “하기야가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목회자들의 사역과 그들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세 교회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하기야 감독과 그의 관리자들에게 대해 UMC 사법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MC(연합감리교) 한인 평신도 연합회가 가주태평양연회를 상대로 한인 목회자 3명에 대한 파송 불가 철회를 요구한 사건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6일 심도있게 보도했다.

CP는 최근 그랜트 하기야 UMC 가주태평양연회 감독이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이성현 목사(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에 담임 목회자 재파송 불가 통보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반발한 50여명의 성도들이 지난 22일 패사디나에 위치한 연회 사무실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UMC 가주태평양연회가 분열적인

이슈인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세 명의 목회자의 견해가 그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있다는 시위대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CP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웨슬리안연합회 가주태평양 지부장인 글렌 하위스 목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하위스는 인터뷰에서 “UMC에

서 분리의정서가 승인되고 교회가 UMC를 탈퇴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하기야 감독이 웨슬리안연합회와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목회자 3명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목사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감독은 그들이 자신에게 ‘충성스럽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로부터 그들

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하위스는 또한 “그들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변장하고 활기찬 신도들을 위해 봉사한다”며 “감독 자신이 의제를 추가한 것 외에는 이들을 제외시켜야 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부 차원에서도 하기야 감독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으며,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의인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예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전도대), 송정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은목사(주빌리미주대표), 신영만목사(동일한 대표이다), 유관지목사(영일로대표), 장민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메리카를 주문화할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의인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환수리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테이션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8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비록 코로나가 범람할지라도 나는...하리라”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많은 지인이 코로나로 인해 소전을 하였다. 특히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많이 가졌다. 부부 선교사들이 며칠 간격으로 가신 분들도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염병이 우연히 왔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세상의 죄의 문제이든, 그래서 세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역병이 그에게서 나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허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겠다. 대면 예배를 못할 때에는 교회에 갈 수 없으니 집에서 무얼 할까 손 놓고 허망해 할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들 각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보고 계셨다고 믿는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교센터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헌당 예배를 준비하며 동시에 한국교회들의 지원을 받은 동문 현지 목사들의 교회 예배당 3곳이 건축되어 그 교회들도 각기 헌당예배를 갖게 된다. 모두 참여하여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3년 전 그 지역 지진으로 가옥들과 길들이 파손되어 아직 보수하지 못한 지역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들이 있다. 그들에게 방문하여 형편을 나누며 격려하고 작은 도움을 보낼 예정이다. 또한 오하카 지역의 교회들에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와 선교센터에서 목회자 IT 세미나를 2박 3일간 진행한다. 이 두 사역들은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 선교팀이 후원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기도의 준비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필자에게 큰 힘을 주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합 3:17-19).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희망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회복의 때임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때임을 믿음으로 보았다. 그 하박국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 선교사 팀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출발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 이번에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떠난다. 자동차에 짐을 가득 싣고 4일 밤낮을 달려야 도착하는 저 남부 치아파스 검은 정글 속의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였다. 선교사들뿐 아니라 선교적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무 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선교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위험하다 하는 나라 곳곳에 들어가 영혼 구원을 일으켰다. 그들 중 일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돌아와 혹여나 하나님과 교회에 누가 될까 마치 죄인처럼 쉬쉬하며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생활에 복귀한 성도들도 있었다. 아니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냐고, 비자가 어떻게 나왔냐고, 현지 방문 선교는 아예 불가능하다 여긴 이들이 놀라워했던 그때도 하나님의 선교는 주의 자녀들에 의해 쉬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역동하였다.

필자는 신학교의 방학 동안 남쪽 지역 치아파스주를 중심으로 여름 단기선교를 진행하게 된다. 매년 5월 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떠났지만, 올해만 필자의 가정사 때문에(하나님 은혜로 두 자녀가 연이어 결혼식을 가졌다). 6월 초 떠나서 한 달간 사역을 하게 된다. 여전히 멕시코는 코로나 재확진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남부지역 치아파스는 방역조치 제대로 되지 않아 맘이 쓰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최전방 선교사만이라도 멈출 수 없겠기에 나름의 담대한 믿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오꼬쾅꼬에 대학원 캠퍼스 겸 선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⑩ “아테네를 찾아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속에 시작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만만치 않았습니. 감옥도 가고, 연속적인 소송(행17:8,13)도 만나 급히 도피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길에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살로니가에 이어 베뢰아에서도 소동을 만나 뱃길로 도망을 가서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피레아스 항구를 거쳐 아테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맹주로서 번성했던 도시이며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현존하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역사 시대가 개막한지 3,400년에 이릅니다. 아테네는 고대 헬라 문화의 요람이라고 보아도 과하지 않는 대표적인 헬라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은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기 위하여 전쟁과 지혜의 신인 아테나와 바다와 자연의 신인 포세이돈이 경쟁했습니다. 인간에게 더 유용한 것을 주는 자가 수호신이 되기로 했는데, 아테나는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하고, 포세이돈은 말과 썰을 선물했습니다. 결과는 아테나의 승리였고, 그래서 도시는 아테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들어서면 아크로폴리스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헬라어로 ‘아크로’는 ‘높은’이라는 의미이고, ‘폴리스’는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의 언덕 혹은 도시의 중심지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헬라문화권에 있는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아크로폴리스하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의미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위시한 여러 신전들이 들어선 아크로폴리스는 헬라문명의 상징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도시의 성소이자 시민들의 정신적 위안소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크로폴리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이 아크로폴리스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

고, 서울대학교에 아크로폴리스광장이 있습니다. 이런 용례에서 아크로폴리스는 민주주의 요람이나 민주광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아고라 광장이 더 가깝습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아래 아고라 광장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아고라의 의미는 ‘모이다’입니다. 아고라도 고대도시마다 있었던 ‘시민들의 회의 장소’였습니다. 이 아고라광장에서 도시 회의는 물론 간단한 운동 시합이 있었고, 국가나 왕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광장이었습니다. 후기 그리스 시대에는 상인들의 노점이 들어서고 아고라 둘레에 고정된 상가들이 들어서서 공공 시장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 시민들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거닐며 우상 신상들을 보았고, 아고라 광장을 거닐며 아테네 시민들과 철학자들과 더불어 대화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덕분에 아테네는 들끓었습니다. 바울을 만났던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아레오파고스’에 세웠고, 바울은 아레오파고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레오파고스는 아테네 대법원이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자신의 딸(알키페)을 겁탈하는 포세이돈의 아들(할리로티오스)을 현장에서 살해합니다. 당시 제우스에 버금가는 힘을 가졌던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열두 신들이 이 언덕에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문헌에 나타난 역사상 최초의 재판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이 언덕을 ‘아레스의 언덕’이라

는 의미로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로마의 원로원처럼 고대 그리스의 귀족들이 사법적인 결정을 했던 장소요 기관이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아고라 광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전이 즐비하게 늘어선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인간 군상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절묘한 곳에 인간들의 시사비비를 가리는 재판정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歷史家) 헤로도토스(Herodotos)는 자신의 ‘역사(ιστορία)’에서 아레오파고스를 언급합니다. 페르시아 군이 침략했을 때 아레오파고스를 점령했다고 전합니다. B.C. 5세기경 술론이 아테네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아레오파고스는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소로 지정 되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경청과 배려를 연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테네 시민 법정 기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던 시기에 아레오파고스는 모든 종교적, 정치적 사건을 재판과 교육감독도 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나 사상의 도입을 아레오파고스에서 필터링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스에 초청강사가 되어 설교합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파고스로 가면서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행17:19)” 바울에게 아레오파고스에서 설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설교)을 할 기회를 잡습니다. 바울의 아레오파고스 설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문입니다. 복음과 바울의 헬라문화에 대한 소양이 아테네를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아레오파고스 설교는 기독교 역사는 물론 인류 문화사에 찬란히 빛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시대적 문화의 산물인 이 설교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협력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가난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물들어가는 예배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4)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3)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물들어가는 예배

앞에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보았듯이 모세의 시내산 예배에서 주체는 하나님 이심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만이 존귀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 예배의 본질이 많이 희석되어가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대 교회들이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정의한다. 즉, 코로나 시대에 영상을 통한 예배가 대세로 되면서 예배를 구성하는 사역자들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려는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진준 목사는 지난 2020 가을 학기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복음적인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통해 “현대교회는 나르시시즘 예배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많이 나타나 있던 사회적 현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가 보편화 되어가면서 예배자의 대상이 단순히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전제가 예배지도자들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니 그 현상은 더 가속화 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현상의 결과로 예배에서 무대 위에 있는 예배자들(설교자, 기도자, 음악가 등)이 인기 영합주의(Populism), 심미주의(Aestheticism) 사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스크를 쓴 채 예배드리고 있다.

그것에 더 깊이 물들어 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뛰어난 연주가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수사학적으로 훌륭한 기술을 갖추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말을 구사해서 좋은 영향력을 펼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예술음악을 펼쳐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귀를 즐겁게 하여 좋은 예술 음악인이라 칭찬을 받을까? 이러한 요소들에 깊은 관심과 부담을 갖고 그것을 목적으로 음악인들이 찬양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에 물들어가는 현상인 것이다.

20세기 초 의학과 심리학과 영성을 한데 결합한 위대한 사상가이자 영성가인 폴 툴루니에는 이런 고백을 한다.

“나는 사람들이 내 글에서 대중을 즐겁게 하는 저술 기법을 익히려고 할까 염려된다. 나는 지금처럼 단순함을 유지하고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런 꾸밈없이 기술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 말이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기도자들에게 또 예배 음악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떨림의 고백으로 매 순간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하는 모든 기술들을 사용하여 인기영합주의와 심미주의적 요소를 드러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

즘에 물들게 되는 중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20세기 초 불버리즘(Bulverism)이라는 신종어를 만들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생각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도 없이 그가 틀렸다고 가정하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부지런히 설명하는 방법이다. 주의를 분산시켜 무작정 그가 틀렸다고 가정한다. CS 루이스는 당시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개탄했다.

이 사상은 교회에 다양한 이론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 때 한국 교회에서는 밴드 악기들(기타, 드럼, 키보드)이 예배음악 악기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이론을 내세워 예배에서 악기로는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악기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회중찬양을 인도하는 중요한 악기로 자리매김하여 잘 정착되어 사용하고 있다.

당시 이 악기들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예배음악의 본질에 근거하기 보다는 너무 세속적인 악기라고 규정하고 교회음악 악기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논리에 근거해 진리를 논하기보다 당시의 문화와 환경에 의해 편리함을 이론 삼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것을 필자는 불버리즘의 한 현상으로 본

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가 대세가 되면서 무대 위에 있는 예배자들(설교자, 기도자, 음악가 등)이 예전보다 더 많이 주연 배우(Actor, Actress)들이 되려는 나르시시즘의 유혹을 받고 있다. 필자는 예배의 모든 사역자들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어 온전한 예배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 복음적인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복음적인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하는 회중들로 하여금 복음의 감동을 통한 동감이 되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 즉 예배에서 회중들은 연주자(Performer)가 되어 하나님을 존귀케 하도록 연주하는 것이고 무대 위에 인도자들은 그것을 돕는(Helper) 역할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버리즘 사상에 고착화 되어 예배와 음악의 본질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급변하는 현대 문화 속에 예배와 음악은 참 많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바뀌어 가며 진실을 가장한 거짓의 유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진 이론들이 내 사역에 정착되지 않게 노력해야 하고, 혹 잘못됨

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참 외로운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바알신을 물리치고 난 후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더이상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만 엘리야에게 답해 주셨다. (왕상 19:13) 그리고 그 헐렘산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질 천명 (왕상:19:18)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이 질 천명과 같은 나르시시즘에 물들지 않은 순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흔쾌한 이 시대에 바르게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계속)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adm@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PCUSA, 작년 신자 5만 6천명 감소...교회 120여 곳 문 닫아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PCUSA가 지난해 5만6천여 명이 줄었으며, 회원 교회도 120여 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4일 PCUSA 사무국은 224차 총회의 사록이 포함된 교인과 회원 교회수에 관한 연례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는 교단 회원의 90%가 출석하는 교단 산하 교회 중 82%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CUSA는 지난해 약 124만 5천여 명의 활동 회원을 보유하고, 이는 2019년 130만 2천여 명에 비해 5만 6689명이 감소한 수치다. 교회수는 2019년 9041개에서 2020년 8925개로 줄어, 116개 교회가 운영을 중단했다.

CP에 따르면, 2019년에도 PCUSA는 약 5만 명의 회원과 120개 이상의 회원 교회가 감소했다. 다른 주요 개신교 교단과 마찬가지로, PCUSA는 지난 몇 년간 교세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CP는 교세가 감소한 요인으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인구의 감소와 함께, 2012년 동

성애자 성직자 인수를 허용한 교단의 자유주의 신학 노선에 따른 회원 교회들의 탈퇴를 지적했다.

J 허버트 벨슨 교단총회 서기 목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문서가 아닌 디지털로만 공개되며, 이는 교단의 재정 문제와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벨슨은 “나는 지난 1년간 우리는 교회를 21세기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재정 상태는 우리가 1인당 금액 사용 방식에 대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했다”며 “우리는 장로교 지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시의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PCUSA가 교단 지출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단은 지난해 8월 재정 문제와 교인 수의 감소로 인해, 2년마다 개최한 총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벨슨은 당시 교단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대규모 장소를 빌려야 하는 “빅텐트 총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위치한 PCUSA 교단본부 ©PCUSA

그는 “재정적으로 우리는 1인당 소득이 고갈된 상태가 되고 있고, 교단의 회원 상실과 관련해 전체 시스템이 경색되어 있다”며 “교

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를 다루는 중”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PCUSA는 코로나 재확산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총회도 취소한 상태.

김유진 기자

“코로나19로 사별한 사람들 사이에 ‘심령주의’ 만연... 조심해야”



©Pexels/Markus Spiske

영국 침례교단이 팬데믹 중 사별한 사람들 사이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령주의’(spiritualism)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1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

르면 ‘심령주의’는 영매를 통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소통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침례자 인도 연구 그룹(Baptist Deliverance Study Group)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기

독교 의식을 요구하는 영적 억압의 큰 문을 열 수 있다”라며 심령주의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교육, 연구와 훈련을 위한 그룹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제인 얼람 목사

는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던 지난해 이후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심령주의’는 ‘유혹’의 한 형태이며 이런 식으로 죽은 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또는 악마의 힘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령주의’에 관여하는 끔찍한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구출 사역’(deliverance ministry)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룹에 연락을 했다”라고 했다.

대신 얼람 목사는 사별이나 슬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지역 교회의 도움을 구하도록 촉구했다.

얼람 목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언제나 충격적이지만, 방문이 제한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친구와 가족 곁에서 떠나지 못했

다. 남은 자들은 독특한 고통을 안고 있으며, 사별 전문가들은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했다.

얼람 목사는 “사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원한다면 영매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로 향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람들이 우리가 본 ‘심령주의’로 인한 속박을 인식한다면 그것과 관계 맺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침례교 인도 연구 그룹은 구출 사역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영국침례교연합(BUGB)의 북서 침례교협회에서 출범했다. 그것은 성공회 교회에서 이미 해왔던 구출 사역에서 영감을 받았다.

BUGB의 후원하에 설립되었지만 침례교 인도 연구 그룹의 서비스는 모든 교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출발 당시 얼람 목사는 “전년에 이어 전 교단에 걸쳐 구출 사역 또는 ‘엑소시즘’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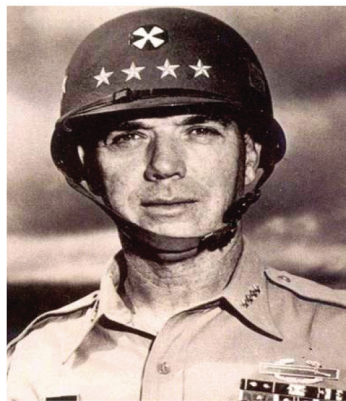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작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동성결혼 케이크 거부 제빵사, 새 책 '내 믿음의 대가' 출간

미국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던 제빵사가 자신의 성경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법정 투쟁의 이야기를 담은 새 책을 25일 출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콜로라도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의 제빵사 잭 필립스는 그의 저서 "내 믿음의 대가: 나의 케이크샵에서 내린 결정은 어떻게 나를 대법원으로 데려갔는가"에서 미국의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건들을 살펴본 그의 경험을 전달했다.

필립스는 1993년 9월부터 콜로라도 레이크 우드에 주문제작 케이크 샵을 열어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2년 7월 남성 동성애 부부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볼린스는 자신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를 필립스에게 의뢰했고, 그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한 성경적 결혼관을 이유로 제작을 거절했다.

당시 잭 필립스는 동성애 커플에게 "저는 당신에게 생일 케이크, 사위 케이크, 쿠키나 브라우니는 팔겠습니다. 단지 저는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는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며 "19개 단어, 약 20초, 그걸 걸린 전부였다"고 책에서 밝혔다.

5년 후, 미 대법원은 필립스와 콜로라도 주 시민권위원회 위원들을 심리했고,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와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7대 2로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민권위원회가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정헌법 1조에 따른 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필립스는 당시의 재판을 회상하며 예수님이 심문을 당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태복음 10장 18~20절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제빵사 잭 필립스. 그는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처

필립스는 "그 약속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며 자신 역시도 총독과 왕 앞에 선 것 처럼, 매번 하나님이 그에게 올바른 말을 주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필립스는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그의 자녀와 손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알길 원한다며,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하신 일을 공유해 사람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 일에 대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련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그분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분의 위로를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스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진정한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것을 배우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필립스의 책은 현재 아마존에서 성소수자(LGBTQ+) 인구통계학 판매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매일 누군가 기독교 떠나... 예배 회복해야"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세태 속에, 미국과 홍콩에서 소규모 가정교회 개척 운동을 이끌고 있는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목사가 교회 예배의 신성함과 경건함의 회복을 강조했다.

찬 목사는 최근 열린 '익스포넨셜 리셋 서밋'(Exponential Reset Summit) 강사로 나서 "함께 사역하던 많은 친구들이 더 이상 믿지 않거나 떠나는 것을 모습, 존경하던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복음주의의 기독교를 완전히 조롱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매일 누군가는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전국 교단과 교회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 이사야 29장 13절의 예언과 동일하다"고 진단했다.

찬 목사는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다. 진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은 단순히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벗어나지 말라.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대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두려움만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유일한 계명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찬 목사는 미국의 현 상황과 관련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싸우고 모든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복음적인 말들 속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식하며 경건과 침묵, 경외심을 갖는 시간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회가 더욱 일치된 수평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 목사는 "세상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박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경외심, 즐거움, 무엇보다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한가? 난 유행병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수평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예배의 신성함을 되살



프랜시스 찬 목사. ©프랜시스 찬 목사 페이스북

리기 위해 더 나은 것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달 미국의 '세계관 인벤토리 2021'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중 43%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개의치 않거나 믿지 않는다"고 했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57%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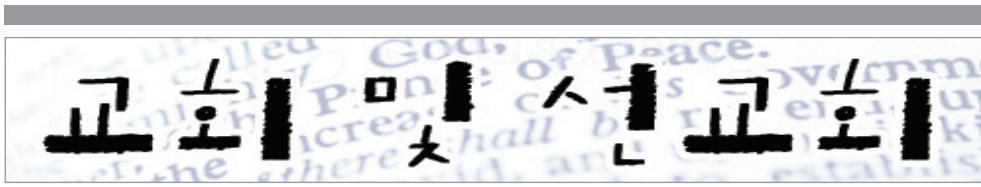
또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후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밀레니얼 세대는 16%에 불과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아포스톨로스 교회'를 이끄는 마이클 유세프(Michael Youssef) 목사는 "점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인기와 육신에 호소하며 뒷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세프 목사는 "미국 목회자들이 사회 및 인종 정의와 관련된 '워크 문화'(Woke Culture)를 받아들일 경우, 문화와 사회로부터 덜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많은 복음주의 강단, 전통적으로 성경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강단 설교에서 활용되는 매우 인기 있는 메시지"라며 "우리는 너무 멀리 가 버렸고, 이는 말 그대로 눈물이 날 정도로 날 슬프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극에 대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미디어와 학교에서 사회의 많은 영역을 버렸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이 분야에 침투해 그리스도께 가져와야 하고 두려워 말아야 한다"며 "우리 바른 편에서 있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림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공복부 예배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금요 말씀과 삶 공부
토요이침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전 7:00
오전 9:00

씨니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인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어린2세를 영육하며, 이만2세를 영육하며, 신교령을 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son) Ed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성지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섬기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금요찬양(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매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친, 친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신묘노키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느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이드)마침내 주일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찬양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MP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성령집회 오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수요일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종교동부 오전 11시 (금요주중예배) 오후 7:30
195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93-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라,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인도서 급진 힌두교도, 기독교 목사 아버지 살해



©CBC 유튜브 캡처

목사의 일가족도 공격받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유행을 겪고 있으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도 계속되고 있다. 급진 힌두교 극우주의자들이 한 기독교 목사의 아버지였던 52세의 기독교인을 총살하고 칼과 낫으로 무장하여 다른 가족들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약 15명의 힌두교 극우주의자들이 지난 화요일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Rajasthan) 주 반사와라(Bansawara)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라메쉬 붐바리아(Ramesh Bumbariya) 목사의 가족을 공격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박해 감시단체인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은 이 가족이 인도 사회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군중 중 한 남성이 목사를 향해 총을 겨누며 발포하려 했지만 발포하지 못했다. 대신 이 남성은 비마 붐바리아 (Bhima Bumbariya)로 알려진 라메쉬 붐바리아 목사의 아버지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발포했다.

ICC는 “목사의 아버지가 쓰러진 뒤 붐바리아 목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며 “붐바리아 목사를 비롯한 가족 2명이 우다이푸르(Udaipur)시의 정부에서 운영 하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 직원이 코로나19 규정 때문에 다친 기독교인들

을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후 목사의 가족들은 나중에 개인 병원에 따로 입원했다.

붐바리아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붐바리아 목사는 인도에서 여러 가정교회를 시작해 인도 사회로부터 ‘강제적’ 전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이어나가자 한다. 나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우리의 농경지를 빼앗았고, 우리의 집까지 파괴했으며 이제는 우리의 목숨까지 해치려고 한다. 내가 없을 때 가족과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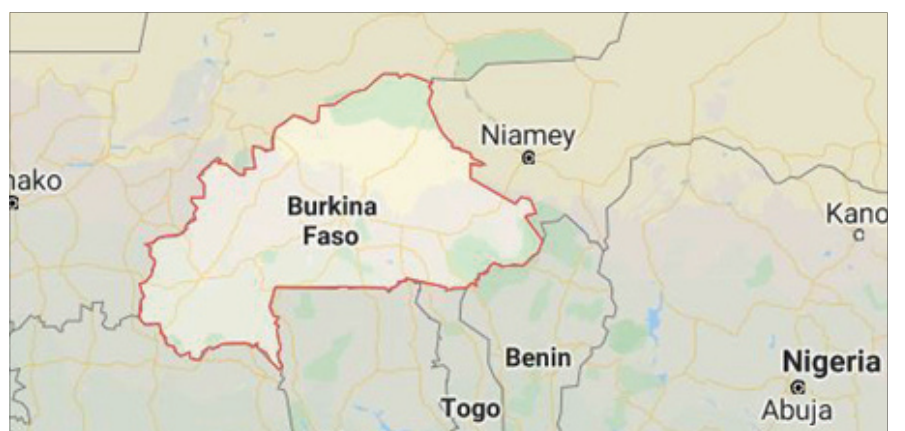
2014년 인도 총선에서 BJP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인도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및 공격 그리고 신앙 제한이 더 엄격해졌다.

순교자들의 소리(Voice of Matyr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토드 넬튼(Todd Nettleton)은 앞서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모디 총리와 BJP의 엄격한 반종교 전환법 영향으로 인해 인도에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도를 기독교인에게 10번 째로 최악의 나라로 꼽은 Open Doors World Watch List(ODWWL)는 “현재의 인도 여당이 집권한 2014년 이후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 늘었고 힌두교 극우주의자들은 거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해진 기자

지하드 세례식 테러,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 15명 숨져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Google

말리 국경 인근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에서 세례식 도중에 매복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기독교인 15명이 살해당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국제기독교컨선(ICC)은 이번 테러가 8월 틴-아코프로부터 4마일 떨어진 아자라라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틴-아코프로 지역 출신인 모하 A.G. 아그라즈는 당시에 사람들이 총격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다고 증언했다. 이번 테러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부르키나파소의 로룸, 콤포엥가, 산마텡가 주에서는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세 번에 걸친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 58명이 살해당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부르키나파소는 약 5년 동안 알 카에다와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무장단체와 싸우고 있다.

2016년 이후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West Africa Province)와 안사룰(Ansarul)을 포함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사헬 지역 전역에서 수백 건의 공격을 감행해왔다.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 80명에서 2019년 1,800명으로 급증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0년 보고서에서 사헬 지역에 대해 “

지하드스트와 다른 민병대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기독교 예배당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며 “정부 산하기관의 부실한 업무수행과 위법행위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하드(성전) 계열의 무장단체들이 테러 표적을 선정하는 동기가 항상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며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특정 지역의 통제권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말리 북부에서 프랑스 군이 반군과 성전주의자들을 패배시킨 후 많은 수가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의 국경 지역으로 도망쳐 세력을 재편성했다.

보고서는 또 “2016년부터는 알 카에다와 이슬람국가 계열 모두 부르키나베 영토까지 범위를 넓혀 다른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안보위기를 촉발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에 따르면, 지하드주의자들의 공격이 쌀과 옥수수를 생산하여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는 부르키나파소 북서부 지역으로 확산, 수백만 명의 식량 공급이 차단될 위기에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현재 2백만 명이 식량 위기에 처해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유진 기자

이찬수 목사 “4가지 비전 선언... 은퇴식은 안 할 것”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성령강림 주일인 5월 23일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아, 설교에서 '4가지 비전'을 선언했다.

이찬수 목사는 이날 '4가지 비전을 선언합니다(역대상 22: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본문의 다윗 왕은 늘 소원하던 성전 건축의 꿈을 아들인 솔로몬이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다윗이 진짜 꿈꿨던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하는가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이었다"며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감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갈등하지 않고, 이어지는 6절에서 아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당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31년 목회 동안, 무게중심이 잘못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돌아보게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분노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는 말씀에 비취, 우리의 꿈과 비전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수 목사는 "창립 19주년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본문 말씀을 묵상했다. 19년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후에 우리교회가 어디에 무게와 방점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몇 달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이 3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 3가지 질문은 ①내게는 다윗처럼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꿈이 있는가? ②그 꿈이 자녀 세대에게로 계승이 되고 있는가? ③그 일을 위하여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목사는 "이 3가지 질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준비한다'는 표현이 본문에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다"며 "예수 믿는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은, 꿈은 많이 꾸지만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다윗이 물질적 준비를 강조했지만, 진짜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욕심 내려놓기다. 그는 "다윗의 귀환은 '나 살자고 손에 피를 묻힌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항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항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저 승복해야 한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둘째 준비는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믿음으로 무장시키기'이다. 이에 대해 "물질과 사람을 준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찬수 목사 ©유튜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일"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다. 1주일에만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함께하면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 2가지 준비를 잘 이루면서, 인생 전체를 걸고 꾸는 꿈, 자녀 세대로의 계승,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 등 3가지를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며 "이제 창립 19주년을 맞아, 그동안 파편처럼 단절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묶음으로 잘 세팅해서 4가지 비전을 선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첫번째 비전은 '드림센터 사회 환원'이다. 그는 "가평우리마을이나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가닥이 잘 잡히고 있다. 남아있는 큰 숙제가 바로 드림센터 사회 환원"이라며 "주중에 모일 곳이 없어, 처음부터 되파는 조건으로 매입했다. 하지만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큰 건물을 세우니, 그 교회들에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비전은 잘 알려진 '일만성도 파송운동'이다. 이에 대해 "많은 성도님들이 깜짝 놀랄 만큼 떠날 준비가 됐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다"며 "예비 담임목사님 29명과 계속 꿈을 나누고 있다. 불꽃놀이 같은 이벤트가 되지 않고, 젊은 교역자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작은 불씨라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세번째 비전은 '가평우리마을'이다. 그는 "귀한 권사님과 2만 평을 제공하신 부부의 헌신에 의해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길 원한다. 송고한 정신으로 헌신했는데, 교회 수양관 만들지 않도록 2년 이상 기도했다"며 "내년 3월 오픈 예정이다. 이미 건물은 다 지었지만, 코로나19로 늦어지고 있다. 더 준비하라는 사인으로 알겠다"고 했다.

마지막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소'이다. 이에 대해 "앞의 3가지가 하드웨어라면, 이것은 소프트웨어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목말라 있다"며 "젊은 교육전도사들과 사역자들이 부모 교육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고 싶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찬수 목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비전이다. 이 꿈을 함께 꾸길 원한다"며 "놀라운 것은 창립 19주년이자 4가지 비전을 선포하는 주일인 오늘이 성령강림주일이라는 점이다. 이 4가지 비전은 성령충만해야 가능하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요엘(2:28)의 꿈이 이 땅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대웅 기자

김정화 남편 유은성, 동성애 관련 발언 논란에 사과



김정화 유은성 부부. ©유은성 공식 인스타그램

CCM 사역자 유은성이 '동성애 반대'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아내인 배우 김정화가 동성애 드라마인 '마인'에 출연 중인 상황에서, 솔직하게 내비친 입장에 대해 일각의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유은성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작품에 대해서 제작진들의 의도와 관계 없는 개인적인 추측으로 신중

하지 못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 결례를 범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제작진, 출연진 분들과 시청자 분들께 누를 끼치고, 작품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유은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누리꾼이 "며칠 전 드라마를 보았다. 아내 되시는 분이 동성애자로 추측되는 역할로 나오던데 조금 안타깝게 보았다"며 "동성애를 이해하고자 하신 뜻으로 역할을 맡으신 건가"라며 유은성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유은성은 "드라마 내용 스포를 할 수가 없어서 더 말씀 못드리지만 한 사람이 그 상황에 고뇌를 겪다가 결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라며 "동성애는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유은성의 의견이 솔직했다는 평도 이어진다. 한 누리꾼은 "김정화 부부의 반대 발언을 응원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동성애는 존중할 수 있지만 반대할 수도 있다. 반대하는 의견도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창,한예)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형청년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애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애로 활약하며 생애 생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생령 전교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침례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침례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사랑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셀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게 사귀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벌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생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애)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년 학위수여식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 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위수여자

명예목회학박사:진건호목사 | 명예신학박사:이학진장로
신학석사:손사라목사 | 교역학석사:채수전, 김나오미, 백선경, 로완리
신학사:임정열, 안정희

일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LA 찬양교회 (김성대목사사무)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2021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6월 21일 개강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다시 시작할 때 서두르지 않는 지혜

다시 시작할 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 년을 잘 기다려 온 제가 조금 서두를 뻔 했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성도님들은, 교육부가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모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까닭에 새로운 변화를 급히 시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속고 하는 중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첫째, 다시 시작할 때 경험하게 될 혼돈스러운 감정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아온 성도님들의 감정은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친근하게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함께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둘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점검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심방세동 시술을 받은 후, 회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설교를 쉬었습니다. 한 달 동안 쉬었지만 충분히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시술을 받은 후에 바로 강단에 서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렀다면 건강을 지금처럼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

다.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이 바로 땅으로 내려와 새롭게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었습니다(창 8:3-4). 물이 온전히 줄어들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많은 날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기다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러 해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서두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고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 따라 충전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면 재충전하는 데 여러 시간이 소요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 수술의 종류와 그 크기에 따라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큰 수술을 받았다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 자가 격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상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시작하는 것을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새 출발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포장지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제 47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일정을 마치고 도망치듯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순복음세계 선교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해를 거르고 2년 만에 치러진 대회였지만, 아직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소보다 훨씬 적은 1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여했습니다. 각 총회를 대표하는 임원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었고, 자가 격리의 심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참석했기에 평소보다 더 큰 책임감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예배 참석 인원의 제한으로 비록 규모는 작아보였지만, 모든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교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우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군 입대자 갑자기 한 주일 연기된 이규석 전도사도 이영훈목사님의 배려로 함께 선교 대회에 참석하여, 인생에 새롭고 큰 도전과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니 그 또한 좋았습니다. 사실 자가 격리 14일을 빼고 4일간의 시간으로 많은 만남과 모임들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에 임팩트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외모를 결정짓는 포장지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내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애써 분별하고 집중하게 되니까 오히려 만남과 모임들이 더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한 글이 떠오릅니다. 미국 최상위 1,000대 기업 CEO 가운데 경제경영학 전공자는 3분의 1도 안됐고 대부분은 인문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같이 유명한 CEO들이 모두 철학이나 심리학,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후진국일수록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인 - sight·통찰력)가 법학, 정치학에서 나오고 중진국에서는 경제학, 경영학에서,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인문학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러니까 내면으로부터 핵심 인사이트가 나오기에 포장지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외모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 진실한 인사이트를 주는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이고, 외모는 연수나 직분이나 업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칫 보이지 않는 내용보다는 눈에 보이는 크기와 외모에 끌려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내용이 없이 사람에게 보이는 외모만으로 신앙을 대신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가차 없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이든 습관적이고 세뇌된 듯 외모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LA로 돌아가 성도님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제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최고 수준의 내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외모보다 내용이 가득 채워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광철 목사의 영성 계발

영성계발의 장애물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박광철 목사

■나태함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나쁜 습관 중의 하나이다. 건강을 위해서 몸의 근육을 얻으려면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몸을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영성이 무뎠거나 미숙한 상태로 머물지 않게 하려면 꾸준히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체력을 강화하는 것은 몇 주간이나 몇 달 정도가 지나면 눈에 근육이 생기고 몸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영성은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영성이 계발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를 닮아가는 것이어서 영성 계발에는 끈기와 꾸준함이 요구된다. 경건 훈련에 나태한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성숙해질 수 없다.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무능이요, 모르면서도 허둥대고 일하

는 것은 무지이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알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마치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엄청난 공약을 남발하고 금방이라도 굉장한 일을 할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있으나 하나 한 자리가 되게 한다. 자신의 영성을 꾸준히 계발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조금씩이라도 실행하라. 예를 들어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과 정한 때에 기도하는 것,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등의 계획을 세우고 교회 또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다.

매사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버리는 것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택 근무가 많아지고 교회 모임도 제한을 받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대충 보는 정도에 그친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래도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르게 앉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 자세가 흐트러진다. 이런 사태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예배하는 자세까지 망가질까 염려된다.

■교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또 자주 드러나는 것이 교만이다. 자기가 가진 것, 아는 것, 깨달은 것 등을 남에게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 자세가 교만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장 심하게 질책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남의 돈을 갈취하는 세리나 몸을 파는 창기 또는 간음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경건하다고 알려진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그들은 율법의 일점일획까지 문자 그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이른바 “종교인”들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같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음란과 악함이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질책하셨다. 스스로 가장 신령한 사람이라는 “영적 교만”을 지적하신 것이다. 교만은 악취를 풍기는 고질병이며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악질 종류다. 영성이 계발되는데 있어서 교만은 독극물과도 같은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것은 신앙에 적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만족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감사하고 만족해한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지위나 소유에 만족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차지할 자리가 없다면 아주 심각한 영적 질병이 된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기를 싫어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한다. “배우기를 그치는 사람은 삶을 중단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아 이 때에는 주변 형제와 부모로부터 배우고 자라면서 친구들을 통해서도 배우며 또 장성하면서는 사회로부터 배운다. 그런데 장년이나 노년이 되면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는가?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한 곳이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사방에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한다. 동료 목사 한 분은 은퇴 후에 사진찍기를 취미로 삼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고 산과 들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작은 야생화나 생물을 근접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올린다.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으면 아주 많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야 한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완벽하게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만 그것을 목표로 평생 달려야 한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늘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체 하는 경향이 있다. 바울은 유대인의 허물에 대하여 신랄하게 지적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않느냐?...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롬 2:17-18, 21, 23).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

은 영적으로 부패하거나 굳어질 우려가 있다. 교만은 언제나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 16:18).

애굽의 바로는 자기의 강력한 군사력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비웃다가 망했고, 웃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졌지만 스스로 교만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꾸민 하만은 자기가 세운 높은 막대기 위에 달려 죽었다. 주님은 교만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1986년 어느 날 밤에 흑해 바다에서 러시아의 두 배가 마주 보고 진행하고 있었다. 한 배는 1,234명이 탄 여객선이고 다른 배는 화물선이었다. 두 배의 선장들은 항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선장들은 서로 향해서 오는 배에 대하여 항로를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라고 외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배가 정면으로 돌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서 결국 정면으로 충돌하여 398명이 익사하였는데 116명의 시신은 찾았지만 282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라고 한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교만 때문에 대형사고가 난 것이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더 겸손하면 살 길이 보이고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굿모닝
 머그컵
 메모지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1-10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에게도 거리가 있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뜻을 같이하고 동행하는 생활을 힘쓰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것으로 허락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기중심으로 모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늘 승리를 보장받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생활은 육신이 세상 쪽으로 원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여러모양으로 어려움을 치루기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기를 중심으로 소원을 삼고 힘쓴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는 노력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뿔쳐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허욕을 따라 험기와 정욕으로 잘못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어 받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중략)...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의 신앙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성령을 받아 모시게 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며, 성령의 인치신 은혜와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일삼고 지옥 길을 재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날의 생활 속에서도 죄 값은 지체없이 찾아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과 절망,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또 죽음이란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괴롭히며 죽어도 죄 값이 남아서 유희를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 시달리게 될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본능의 욕구를 따라 개, 돼지처럼 온갖 죄악에 찌들려 상하며 지옥 길을 재촉하며 잘못 살았던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또한 전날의 인간 죄인괴수나 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것을 물속에 장례 치루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2-6에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중략)...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해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릇으로, 지체로 사용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한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3절과 같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직책을 얻어 영혼이 회개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며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전혀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무엇에든지 거리가 없게 하려고 전혀 약점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들은 맡겨진 양떼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들을 견디고 환란, 공핍, 곤란, 매 맞고 망신당하며, 제대로 잠도 못자고 끼니를 찾아 먹지도 못하더라도 자신의 영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며 오래참고 견디면서 육하고 혈통고 해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배풀어 그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도우심과 거저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맡겨진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잘못되면 야단도 치고 벌도주고 또 연약한 심령은 호소하고 달래고 권면하면서 거이코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해주려고 책임목회의 사명에 자기 생애를 쏟아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살면서 하나님에 의롭게 쓰실 도구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영광의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들을 때도 있으며 아름다운 대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 “십일조를 온전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창고가 쌓아 둘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주신다”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믿어지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넘치도록 아멘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목사가 돈 내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에는 목사가 속이는 자같이 생각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으면 하늘소망의 확실한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순종하고 사는 것이 거듭난 이유이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더니 실패했고, 또 다시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용서받아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려고 회개도 했고 거듭나기도 했다면 지금쯤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은 우리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몸소 치루시면서 죄인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낮추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맙고, 황송무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그 은혜 보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들이 밤낮 기회를 엿보며 울무를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아래 있는 사람은 죽이고자 하나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싸서 그 모든 사망의 울무를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며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환란을 겪고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환란과 핍박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를 통하여 은혜받기는 영 틀려버린 것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12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했습니다. 세상은 마귀소굴이라서 더 돋보이는 믿음으로 살고 더 잘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더 큰 환

란과 행패와 고통과 훼방을 당하게 마련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자가 잘못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양떼들도 그를 본보기 삼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하여 더욱 애쓰며 살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일도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깨끗한 믿음 지키는 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는 것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은 목사 자신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23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라”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그분께 요긴한 존재들로 기대 거시고 크게 쓰실 계획이 남아있는 양떼 되어 질수만 있다면,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거듭난 척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며, 진실로 거듭났으면 이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해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의 생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만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드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예수님 뜻대로 동행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up \$2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공산주의와 중국발 미세먼지 (1)

중국발 미세먼지 위협, 그 사상적 원인은 공산주의?

분단과 전쟁, 끊임없는 외침과 위협, 국민 갈등에 21세기에는 환경오염까지,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 한국,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가장 큰 피해 입는 중

◆기독교와 환경: 환경파괴와 종말의 불안에 민감한 기독교 문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 2014)는 환경 파괴로 멸망해가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 속에서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는 바로 미래 폭풍이다. 이 미래폭풍이 동식물 대부분을 멸종에 이르게 만들면서, 인류는 지구 바깥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하여 '나사로 프로젝트(Lazarus Project)'라 불리는 인류구원 탐사 계획이 실행된다. '나사로 프로젝트'라는 명칭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나사로와 같이, 죽어가는 인류를 살려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네 명의 훈련받은 우주인들이 지구를 떠나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로 머나먼 우주 여행을 나선다.

2019년 넷플릭스를 통해 보급된 영화 <아이오(Io)> 역시 비슷한 설정이다. 지구는 대기오염으로 산소가 대부분 사라지고, 오직 유독가스만 남게 된 상황이다. 인류 대부분이 이 유독가스와 산소 부족,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죽음에 이르고, 극소수 살아남은 이들이 '아이오'라 불리는 목성 근처 우주정거장으로 피신한 상태이다.

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몇 명 되지 않는 이들은 마지막으로 아이오로 피신하는 우주선을 타려고 우주선 발사 지점으로 모여든다.

일전의 논쟁들에서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 대중문화계에는 인류 멸망에 관한 작품들이 흔하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류 멸망은 이 분야 단골 설정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에 <인터스텔라>나 <아이오>가 있다면, 일본에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가 있다.

두 나라의 종말 서사 작품에는 커다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일단 공통점 측면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인류 멸망의 직접 원인으로 과학기술 오·남용이 지목된다는 것이다. 핵전쟁이나 무분별한 자원개발 등을 다루는 작품의 서사 대부분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종말에 대한 불안의 문화적·심리적 배경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생존의 위협과 태평양 전쟁 패전 당시의 역사적 트라우마, 특히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경험 이 일본인들로 하여금 인류 종말 서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었다.

반면 미국인들의 인류 종말 서사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문화배경을 갖는다. 미국 대중문화계 종말 서사 상당수가 요한계시록에 기록

된 종말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상상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종말 서사 영화나 TV 시리즈에 엿보이는 것처럼, 기독교 창조론과 종말론에 대한 믿음을 세계관 형성 배경으로 삼고 있는 미국인들과 유럽인들 대부분은 종말에 대한 직·간접적 두려움을 안은 채 살고 있다.

물질적 세계, 우주가 결코 그 자체로 완전무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기에, 언제든 파괴되고 소멸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무신론과 세속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 각국이 교도 의정서(Kyoto Protocol)나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 같은 공동대응 시도를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 역시 일정부분 기독교적 세계관, 특히 종말론적 세계 이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와 환경: 종말을 불신하고 환경에 무자비한 공산주의 세계관

오늘날 범지구적 규모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자주 회자되는 국가가 있다. 다음이 중국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대규모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태평양 쓰레기 벨트, 그리고 최근 들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이 상당한 정도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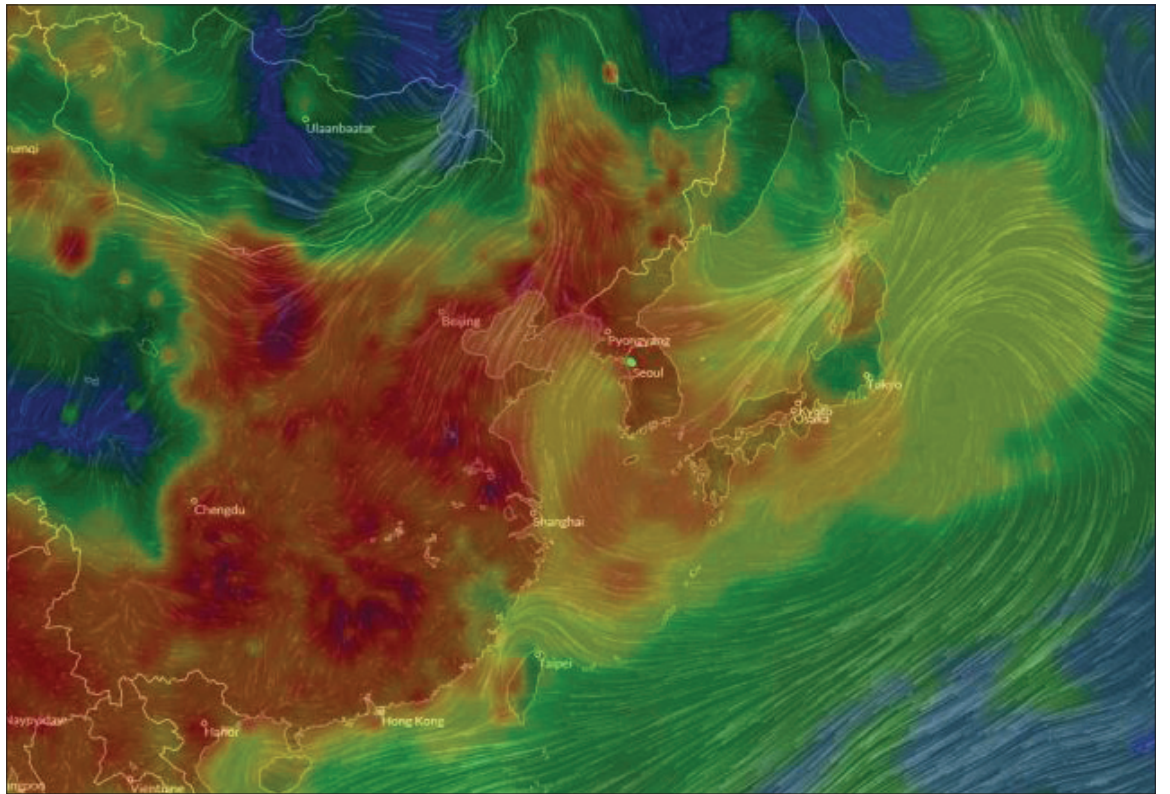
물론 산업화에 의한 환경 오염 및 파괴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라면 어디든 겪는 문제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18세기 말 산업혁명 시작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

그리고 이 경제발전 역사를 뒤따라가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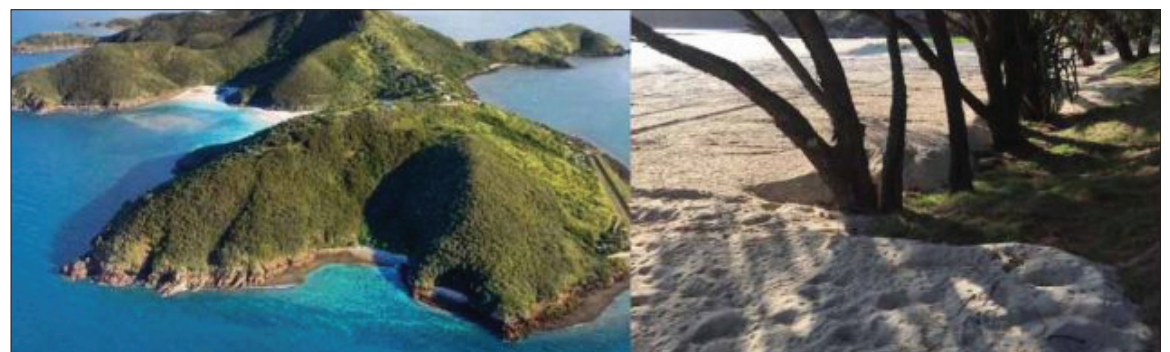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중국의 환경파괴 수준은 가히 압도적이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인구 수, 거대한 영토, 그리고 이 두 요소를 적정 한도 이상으로 활용하는 막대한 규모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중국 본토는 물론 주변국 모두가 중국이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빈약하다.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신재생에너지나 환경친화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살펴볼 때, 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산업들이 향후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뒤덮인 한반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케스윌 아일랜드. 중국의 투자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지인들이 해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섬의 숲이 모래밭으로 변하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다. 중국식 개발사업이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대표하는 사례로 최근 자주 지목되고 있다. ©news.com.au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환경오염 행위에 뒤늦게나마 제동을 걸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유독 중국이 이 흐름에 참여하는 데 미온적일 뿐더러, 혹 참여의지를 보이더라도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중국인들, 특히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공산주의 세계관을 지목할 수 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환경파괴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사고구조를 갖는다. 우선 반종교적 유토피론 사상을 고수하기 때문에, 기독교 창조론이나 종말론을 전적으로 불신한다. 이렇게 종말론을 폐기하려는 태도 때문에 세계와 인류의 종말 가능성 역시 부정한다.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중국식으로 수정한 마오쩌둥식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진 중국 공산당 수뇌부 역시, 인류 종말에 대한 불안이나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도로 쥐어짜내 이익을 갈취하는 행태로 이어진다. 중국이 주도하는 자원개발 사업 및 대규모 토목사업이 유독 심각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사상적·문화적 배경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파괴적 행태는 중국의 고질적인 중화사상과 맞물려 주변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중국인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추진한 일대일로 관련 개발 사업들, 그리고 한때 친중 성향을 보

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벌인 수많은 개발사업이 초래한 환경적 피해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국들이 그 피해에 놀라 급하게 '차이나 머니'의 유입을 막으려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러한 중국의 무개념 행각들은 기독교 종말론을 거부하고 폐기하려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반종교적 성향과 깊은 사상적 연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지구 환경의 오염과 파괴에 둔감한 다른 두 가지 이유, 마르크스적 역사 변증법과 진화론적 낙관주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지난 주 내내 우리 나라를 뒤덮은 살인적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선사한 중국의 20톤짜리 우주쓰레기 추락 사례는 사상적·문화적으로 볼 때 모두 중국의 공산주의와 중화사상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

따지고 보면 한국만큼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또 존재할까 싶다.

20세기 내내 이어진 분단, 전쟁, 끊임없는 외침 위협, 국민 간 갈등과 분열에 이어, 21세기에는 중국의 살인적 환경오염까지 모두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에 상당 부분 기인한 국가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

(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스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자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 사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미세먼지로 시야가 흐려진 서울 광화문 모습. ©이대웅 기자



모래로 뒤덮여 황폐해진 지구에서 멸망해가는 인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인터스텔라>.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 복음보다 '소문' 이 더 빨리 퍼지는 곳이다?

왜 사람들은 진실보다 거짓에 더 관심을 가지는가?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거짓 휘둘리는 인생 아닌, 진실을 전하는 삶이 되길



진실의 흑역사 톰 필립스 | 흥한결 역 월북 | 300쪽

거짓은 인간의 유구한 특성이자 역사 속 거짓말쟁이들을 탐구한 지적 여정이 시작된다

정치인은 기만하고, 장사꾼은 사기 치고, 언론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어떤 의사들은 순 돌팔이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얻고, 쉽게 공유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가늠할 수 없는 시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짓'의 역사가 여기 있다.

복음의 특징은 확장성이다. 복음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고 빛이 어둠을 밝히듯, 복음은 있는 그대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를 겪는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변화는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렸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 복음의 힘이다.

교회는 복음이 퍼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역할은 복음이 퍼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퍼지는 것은 복음만이 아니다. 소문도 함께 퍼진다. 아니, 오히려 복음보다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경우가 많이 목격했다.

세상이라고 다르지 않다. 세상에는 소문들이 넘쳐난다. 소문의 특징은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많다는 것이다.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섞여 있다. 문제는 거짓이 확실해 보이는 소문에도 믿는 사람들이 소수일망정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퍼진 소문은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2018년 총주에서는 거짓 고발로 조사받던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사건의 시작은 동료의 거짓 고발이었다.

어째서 거짓은 진실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갖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진실보다 거짓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진실의 흑역사>는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인간은 어떤 특성이 있어 진실보다 거짓에 더 잘 휘둘리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간다.

<진실의 흑역사>의 저자는 톰 필립스다. 그는 영국의 비영리 팩트체킹 기관 '폴팩트'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인류의 실패사를 다룬 <인간의 흑역사> 저자이기도 하다.

저자는 우리는 매일 거짓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강요한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이른바 '하얀 거짓말'에 능해야 한다. 우리는 너나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한 적이 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과 10분 대화

하는 동안 거짓말을 평균 세 번 한다고 한다."

저자는 거짓이 진실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거짓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한다.

첫 번째는 노력 장벽이다. 노력 장벽은 소문의 중요도에 비해, 그것의 사실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가리킨다. 노련한 사기꾼은 그런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허위 사실을 꾸며낼 때는 검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정교하게 만들어 낸다.

두 번째는 정보 공백이다. 우리 뇌는 무엇에 관해서든 처음 얻은 정보라면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기준점 효과'라고 한다. 처음 얻은 정보를 다른 정보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반복 현상이다. 누군가의 주장이 반복되면, 검증할 생각보다 정보가 옳다는 확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순히 같은 주장이 거듭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네 번째는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다. '확증 편향'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고 싶은

면,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허황한 주장도 그럴싸하게 포장하곤 한다. 다섯 번째는 자존심의 탓이다. 우리는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정말 싫어한다. 거짓에 속은 것을 깨닫는다 해도 자신의 오류를 숨기고 싶어한다.

여섯 번째는 무관심이다. 거짓을 밝혀낼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를 꼭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일곱 번째는 상상력 부족이다. 우리는 거짓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미처 깨닫지 못한다. 뉴스에서 나온 기사는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말쭙한 사람을 보면, 사기꾼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여러 명의 목격자가 뭔가를 보았다고 하면, 무엇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다.

이런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 저자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관심 두기다.

거짓에 속지 않는 최선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야기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진실만을 추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거짓을 은연중 받아들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진실에 다가갈 때 축하해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솔직히 인정하기다.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발견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럴 때는 솔직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질책이 아니라 축하해 주는 것이다. 처음부터 틀린 말을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자기 말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

SNS의 발달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잉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만들어낸다. 거짓된 소문은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다. 그리스도인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역술한 일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 복음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보여준다.

사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눈을 덮고 있던 거짓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다. 거짓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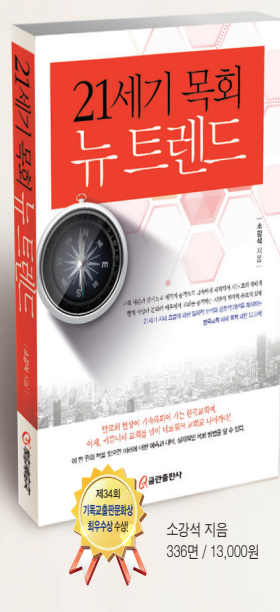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59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교회협의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가 이끌어야 할 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매년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장영성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회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철호 목사



호남신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희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년도 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흥, 회의를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학교총회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회총무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온영사, 호남신학교 교역부,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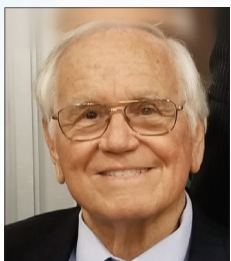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축사) 로렌 커닝햄 총장 YWAM



(격려사) 주선애 교수 장신대 명예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 대면 또는 ZOOM 비대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연합)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연합)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통일부교육위원



(구출구제)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정치)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홍보팀장



(지하교회)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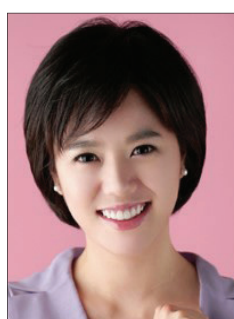
(영상문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영어2세)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간증)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총괄) 박상원 목사 GBMW



주관: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협력:



협찬: 미주기독교일보

